

OxyChem, VCM 방출 범위반 벌금

EPA, 펜실베니아주 VCM 플랜트 조사 ... 1000만달러 이상 벌금 구형

미국 환경보호국(EPA)은 OxyChem의 펜실베니아 Pottstown 소재 VCM(Vinyl Chloride Monomer) 플랜트를 환경법규 13 항목을 위반한 혐의로 범칙금을 부과했다.

EPA는 Region 3 조사의 일환으로 펜실베니아주 Pottstown 지역의 VCM 방출량을 조사한 결과, OxyChem에 벌금 1000만달러 이상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중매체를 통해 공개한 최초의 케이스로 EPA는 공기, 물 및 위험폐기물에 관한 서로 다른 처벌기준을 이용해 환경법을 교묘히 피하고 있고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OxyChem은 EPA의 공개방식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 근거 없는 위반사항에 대해 신중해 고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EPA의 주장이 과장됐다고 설명했다.

EPA의 Mid-Atlantic 사무국은 2003년 가을 Region 3, 즉 미국의 VCM 방출량의 34%를 차지하고 있는 델라웨어주, 워싱턴 D.C., 메릴랜드주, 펜실베니아주, 버지니아주 및 웨스트버지니아주를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갔다.

Toxics Release Inventory(TRI)에 따르면, OxyChem의 Pottstown 플랜트는 VCM 방출량 부문에서 미국 2위를 차지하고 있다.

EPA는 2003년 2월부터 13일 동안 시행한 조사에 따른 결과에 따라 VCM 방출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과 연료오일 방출 방지 계획이 미비한 점. 그리고 부적절한 폐기물 저장방법으로 OxyChem에 13개 항목 위반혐의로 일일 최소 2만7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EPA Region 3의 이번조사는 VCM 방출량이 많은 플랜트 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앞으로 Region 3 지역을 중심으로 다른 VCM 플랜트도 조사할 방침이다.

EPA는 OxyChem이 미국 2위 VCM 방출기업이라는 것과 펜실베니아주 주민들의 질환발병률이 높은 점을 감안해 OxyChem의 첫 번째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펜실베니아주 주민들의 사망률, 암 발병률, 태아 사망률, 저체중 태아 출산률 및 소아 천식률 등 모든 질병 발병률은 다른 지역의 평균 수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VCM은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OxyChem은 화해고섭을 거부할 경우 적법한 소송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Chemical Journal 2003/11/17>